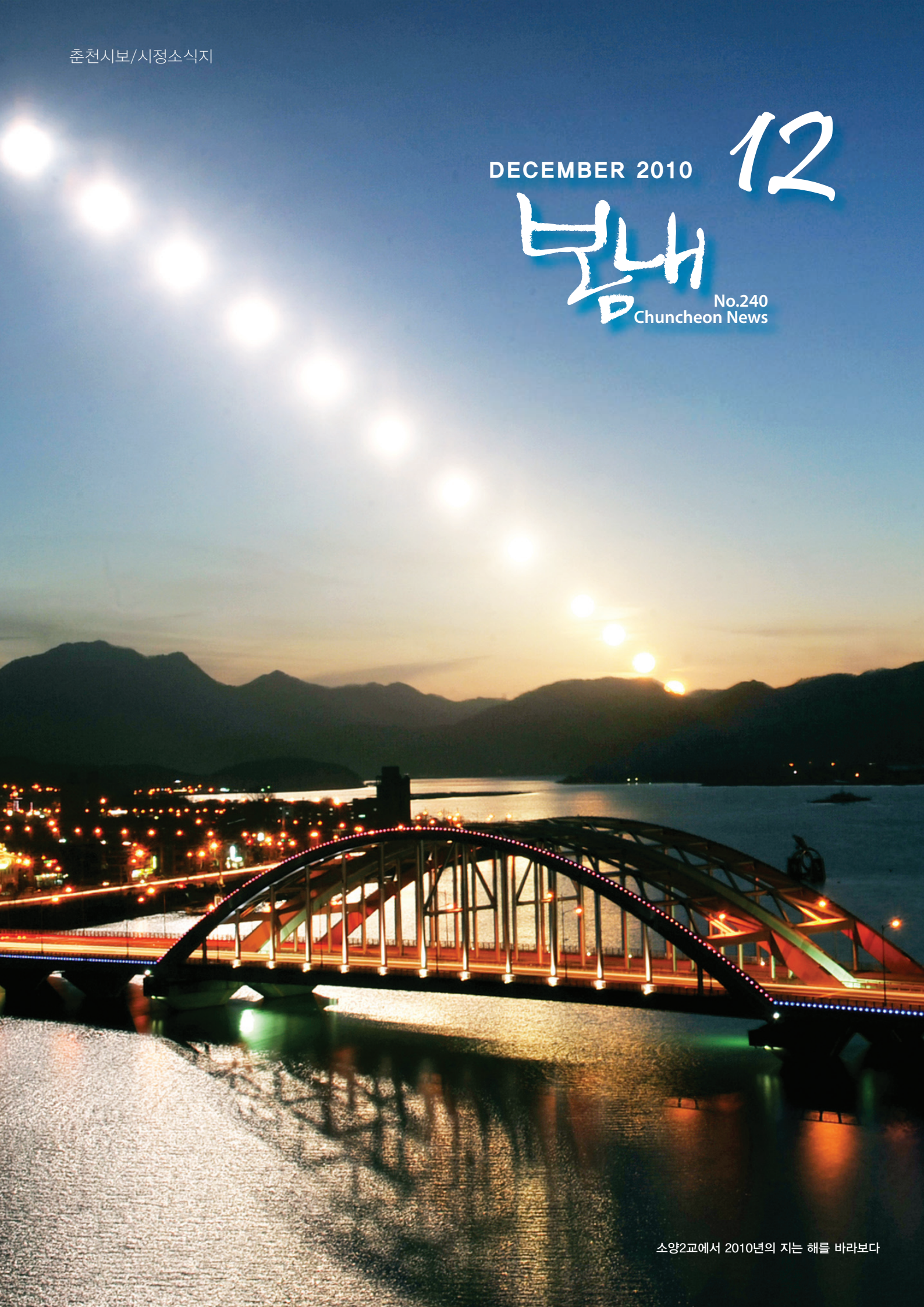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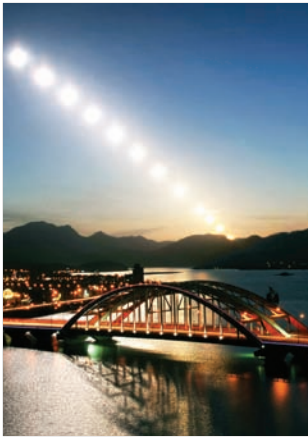
DECEMBER 2010

12

보내

No.240
Chuncheon News





표지이야기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 호랑이띠 해가 소양2교 너머 서면 뒷산으로 저물고 있다.
 지난해 춘천~서울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올해 경춘선 복선전철까지 개통돼 춘천으로서는 양쪽 날개를 달아 맘껏 웅비하는 한 해를 보낸 셈이다.
 활기찬 수도권 도시로 다시 태어날 2011년을 기약해 본다.
 사진은 오후 3시30분부터 해질 때 까지 5~10분 간격으로 일몰 궤적을 촬영해 합성했다.

CONTENTS

포커스	04	연말 풍경
복선전철개통①	06	운행내용, 개통식 행사
복선전철개통②	08	시내버스노선 확대, 시티투어, 한류열차운행
춘천은 지금①	10	의회예산심의결과, 신년해맞이
춘천은 지금②	12	더존 IT그룹 춘천에 둥지
지역경제 살립시다	14	중앙시장 낭만시장으로 바뀌다, 구제역 방역 총력
봄내그림	16	소양강, 위나리나루
노인·복지	18	홀몸노인 공동생활가정, 강원도정신보건센터
춘천을 빛낸 사람	20	인장공예명장 신재진, 떡명장 박정화 씨
우리직장 이런사람	21	(주) 인컴즈 김경섭 씨
겨울방학 이렇게	22	엄마생각 자녀생각, 엄마표 간식
춘천분지 이어돌기 산행	24	향로산
문화사랑방	26 27	미술관을 가다 - 갤러리 스페이스공 국악 뮤지컬
추억한토막	29	1930년대 춘천농고교실 점심시간
춘천사람 이야기꽃	30 32	춘천기계공고생 건축공학 대상 한림대 의대생 대학가요제 대상
이것만은 지킵시다	33	전철 에티켓
우리동네소식통	34	
의회소식 알림마당	35 38	10분 자유발언
광고	40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 시간표



춘천시보 240호(2010년 12월)

발행인 전주수 | 기획 및 디자인 춘천시청 공보담당관실(250-3229, 250-4169)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 발행일 2010년 12월 27일

춘천시보 보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춘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됐다.

도심과 아파트촌 사이로 전동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에서 춘천이 수도권으로 탈바꿈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동열차를 타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 아산까지 빠르고 편리하며 싸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남춘천역(오른쪽)으로 진입하는 8량의 전동열차.





①



⑤



④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산타할아버지 모형이 주위를 밝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시위도 열리고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친다.
 연말연시 풍경을 화보로 실는다.

사진설명

① **성탄 트리 점화** - 중앙로 로터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점화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② **산타와 눈사람 인형** - 공지천 뜨락 앞에 산타할아버지와 눈사람 조형물이 세워져 연말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③ **명동 외국인 북적** - 한국 겨울의 낭만을 만끽하려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명동 거리가 활력이 넘치고 있다.

④ **북한 연평도 포격 규탄 결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결기대회를 가졌다.

⑤ **산타우체국** - 춘천우체국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산타우체국 발대식을 갖고 산타옷을 입은 채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운영될 산타우체국은 집배원들이 산타옷을 입고 우편물을 배달한다. 특히 불우이웃에게 쌀과 학용품, 생필품 등도 전달하고 있다.



서울까지 1시간 수도권 시대 열렸다

첫차 오전5시10분, 막차 밤11시 ... 배차간격 12~20분

진동·소음 줄어 쾌적, 좌석 급행 내년 말 개통



12월 21일 개통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경춘선 북선전철이 서울까지 1시간 거리로 가까와져 개통 효과를 실감케 했다.

개통 후 실제 타 보니 급행전동열차는 남춘천~상봉이 1시간, 춘천~상봉이 1시간3분 걸렸다.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전동열차는 남춘천~상봉이 1시간 15분, 춘천~상봉은 1시간19분으로 급행열차보다 15분 더 소요됐다.

춘천~상봉 구간 중간 정차역은 16개지만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3개 역이 더 생긴다.

급행열차 평일 5개역, 주말 7개역 정차

급행전동열차는 평일은 5개역(남춘천, 가평, 마석, 평내호평, 퇴계원) 주말·휴일에는 7개역(강촌, 청평 추가)에서만 정차한다.

1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상봉이 서울 외곽지역이어서 지하철 7호선이나 중앙선으로 갈아타 서울 도심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일반전동열차의 시종착역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용산까지 연장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양평 방향의 중앙선은 용산까지 운행되고 있다.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내년 말에 개통될 좌석형 급행전동열차 운행이 기다려진다.

상봉을 거쳐 용산까지 연장 운행돼 서울 도심이나 인천 수원 방면까지 환승도 편리하고 시간도 크게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 급행전동열차가 빠르지만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대 30분, 기타 시간대 1시간이어서 아무 때나 탈 수 없는 불편이 있다.

배차간격 출퇴근 12분, 기타 20분

일반전동열차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2분, 기타 시간대 20분이다. 그러나 출퇴근 일부 시간대는 최대 25분까지 기다려야한다.

춘천역과 상봉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첫차는 평일은 오전 5시10분, 주말에는 오전 5시40분이다. 막차는 평일·주말 모두 밤 11시다.

하지만 밤 11시 이후에 양쪽 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4편(상행 1편, 하행 3편)은 모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까지만 운행돼 춘천이 차별을 받는 셈이다.

수송 인원은 열차 1대가 8량으로 1량 당 입석 포함해 170명이어서 한꺼번에 1,300여 명까지 가능하다.



수도권 관광객들로 붐비는 남춘천역 앞

운임은 2,600원으로 싸져 서울교통카드 등을 이용했을 경우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적용돼 3,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특히 65세 이상 경로고객은 무임승차다.

이명박 대통령 참석 개통식 성황

12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 개통식은 춘천역 광장에 설치된 돔 형태의 임시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광재 도지사, 이광준 춘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주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은 식

전행사로 가수 주현미와 젠틀맨 퍼니 밴드의 공연에 이어 홍보 영상물 상영, 경기·강원지사의 환영사, 대통령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많은 이들의 추억을 안고 달려왔던 경춘선이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을 싣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통식장은 많은 차량과 인파로 붐볐고 남춘천역 주변 퇴계동 일대와 명동 닭갈비 골목 등지에는 노인층 위주의 관광객이 대거 몰려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경춘선복선전철 운행내용

* 운행시간표는 겉표지 뒷면

구분	일반전동열차			급행전동열차		좌석형 급행전동열차
개통일시	2010.12.21			2010.12.21		2011년말
시종착역	상봉			상봉		용산
중간정차역	모든역 (16개역)			평일 5개역(남춘천, 가평, 마석, 평내호평, 퇴계원) 주말,휴일 7개역 (강촌, 청평 추가)		미정
운행시간	춘천역 출발	79분		63분		춘천~상봉 44~53분
	남춘천역 출발	75분		60분		춘천~용산 69~78분
운행시각	첫차	평일	상행 오전 5시33분 하행 오전 5시18분	상하행 오전 5시 10분		미정
		주말/휴일	상하행 오전 5시40분	상하행 오전 6시		
	막차	평일,주말, 휴일	상하행 밤11시	평일	상행 밤10시45분 하행 밤10시 20분	
				주말,휴일	상하행 밤10시	
운행횟수	평일	96회		41회		미정
	주말,휴일	80회		34회		
배차간격	평일 출퇴근	평균 12분		30~40분		미정
	기타	15~25분		60분		
운임	2,600원			2,600원		5,200원
경로고객(65세이상)	무료			무료		2,600원
지하철 환승	7호선, 중앙선			7호선, 중앙선		1호선



복선전철개통 ② |

춘천역·남춘천역 중심으로 4개 노선 신설, 7개 노선 변경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주 역사(驛舍)인 춘천·남춘천역과 주요 관광지 및 시내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확대 조정됐다.

춘천·남춘천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이 신설됐고 7개 노선이 변경 운행된다.

우선 춘천역과 남춘천역, 소양강치녀상, 근화동 당간지주 앞, 효자교, 퇴계동 일성아파트 앞 등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2곳에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했다. 춘천역에서는 12-1번을 타고 남춘천역과 소양강댐을 오갈 수 있으며 62, 63, 120번은 후평동, 애막골 등 시내 구간과 연결된다.

남춘천역에서는 11, 12-1번을 통해 소양강댐까지, 66번은 월곡리, 1,3번은 팔봉산, 50, 50-1, 55, 56, 3, 5번은 강촌·구곡폭포까지 각각 운행된다.

후평동 방향은 8, 9, 66-1, 130번을 이용하면 된다.

전철역을 경유하는 주요 관광지는 소양강댐과 춘천 박물관, 인형극장, 도립화목원, 구곡폭포, 삼악산 등 모두 15개 노선이 운행된다.

전철을 이용하는 102보충대 입영 장병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임시노선(101번)이 운행된다. 통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지 유

학생을 위해 강원대·춘천교대는 남춘천역에서, 한림대는 춘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배치했다. 한편, 춘천을 찾을 관광객을 위한 춘천시티투어와 춘천한류관광열차도 운행에 들어갔다.

- 운 행 일 : 2010. 12. 22(수)부터 매일 1회
- 운행시간 : 10:00 ~ 17:00
- 출발장소 : 춘천역
- 이용요금 : 어른 5,000원 / 장애인·군인·경로·청소년·어린이 3,000원(중식, 입장료 미포함)
- 인터넷예약 : www.haniltour.co.kr / tour.chuncheon.gr.kr
- 현장접수 : 춘천역 관광안내소(250-4313)
- 전화문의 : 한일여행사(257-5533), 춘천시청(250-3089)

- 운 행 일 : 2010. 12. 2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 출발장소 : 서울역(2층 1번 출구)
- 열차편성 : 누리호 / 4량 / 261명
- 이용요금 : 내국인 59,000원, 외국인 89,000원 (왕복열차비, 버스비, 식사(중·석식), 입장료, 이벤트비, 여행자 보험료 포함요금, 단 내국인 중식 포함안됨)
- 코 스 : 서울역(08:00) ~ 남이섬 ~ 명동 ~ 물물시장 ~ 막국수체험박물관 ~ 구봉산전망대 ~ 김유정문학촌 ~ 서울역도착(19:30)
- 인터넷예약 : www.korailtravel.com(코레일관광개발)
- 전화문의 : 코레일관광개발(1544-7755)

BUS LINE

복선전철역 기준 시내버스 확대노선표

○ 춘천역

노선 번호	노선 유형	운행횟수	운행경로		
			기점	경유지	종점
계		77			
120	신설	45	후평동	한림대, 소양로, 춘천역, 캠페이지 도로, 한림대	후평동
12-1	노선연장 및 증회	20(13→20)	남춘천역	중앙로, 캠페이지도로, 춘천역, 우두동, 신북읍	소양강댐
62	기존	6	후평동	후평동, 향군회관, 시청, 중앙로, 공지R, 청와A	춘천역
63	기존	6	애막골	세경6차, 시청, 중앙로, 공지R, 청와A	춘천역

○ (신)남춘천역

노선번호	노선유형	운행 횟수	운행경로		
			기점	경유지	종점
계		162			
130	신설	24	후평동	만천리, 애막골, 거두택지지구, 교대, 강대정문, 퇴계일성A 남춘천역, KBS, 남부사거리, 강대정문	후평동
66	신설	3	남춘천역	공지천R, 중앙로, 한림대, 도민일보, 동면옥광산	월곡리
66-1	신설	3	후평동	도민일보, 한림대, 중앙로, 공지천R	남춘천역
9	변경	53	후평동	애막골, 강대후문, 시청, 중앙로, KBS, 남춘천역, 퇴계A단지, 학곡리, 퇴계A단지, 남춘천역, KBS(순환노선)	후평동
11	변경	32	후평동	팔호광장, 미려골, 일성A(신설도로), 남춘천역, 공지R, 중앙로, 소양로, 소양댐	소양강댐
12-1	변경	20	남춘천역	KBS, 약사A, 중앙로, 캠페이지도로, 춘천역, 소양2교, 뚝샘밭	소양강댐
17-1	변경	3	남춘천역	KBS, 약사A, 중앙로, 소양로, 우두동, 신북읍사무소	유포2리
19-1	변경	3	남춘천역	KBS, 약사A, 중앙로, 소양로, 우두동, 면허시험장	발산리
1	변경	6	후평동	팔호광장, 중앙로, 약사A, KBS, 남춘천역, 퇴계우성A	두미리
8	기존(증회)	15 (14→15)	후평동	후평동, 만천리, 청실A, 동아(터널), 강대후문, 중앙로시외T, 남춘천역, 중앙로, 강대후문 (순환노선)	후평동

○ 임시 운행노선

※ 102보충대 입영 관련 매주 화요일에만 운행

노선번호	노선유형	운행시간	운행경로		
			기점	경유지	종점
101	임시노선	10:00~15:00	남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삼천동사거리, (구)시외터미널, 춘천역, 신동	102보충대

○ 기타

노선번호	노선유형	운행횟수	운행경로		
			기점	경유지	종점
18	노선변경	5회	후평동	팔호광장, 봉의초교, KBS, (신)풍물시장, 중앙로, 소양로	오항리

2011년도 의회예산심의 결과

市가 심의요청한 예산 중 17억 4천여만원 삭감

시보(市報)발간예산 4억 중 1억2천만원 삭감, 당장 來1월 차질예상

을 1월부터 시작한 책자형 시보, 채 1년도 안돼 다시 신문형으로 환원요구

춘천시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19회 정례회 예결위원회에서 시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심의요청한 7,808억3,557만3,000원 중 17억4,663만9,000원을 삭감 의결했다.

내용면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5억5,000만원을 삭감처리했는데

▶시보발간예산 4억원 중 1억2,000만원을 이월선 의원이 현재의 책자형태에서 신문형태로 전환해 예산을 줄여야한다고 해 삭감처리됐고

▶시장배 중학교, 고등학교 친선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6,000만원을 2년 연속 미개최됐으며, 윤채옥 의원이 향후 개최가 확정되면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춘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1억원 중 2,500만원도 삭감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예산 4,000만원은 홍윤표 의원이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시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전액 삭감 처리했다.

▶공동주택담장허물기 사업 2억원은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며 전액 삭감했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김혜혜 의원이 타국에서는 불법이고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의 반대와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시비부담액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편, 특별회계는 총 2건에 11억9,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김혜혜 의원이 주차장확보와 연계된 교통흐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6억4,000만원 중 50%인 3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용수사용료(물값)는 춘천시민 여론과 정서에 배치

된다며 8억7,472만3,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에서는 시보 예산의 경우 기존 타블로이드(A3크기)로 제작하다가 지난 해부터 시안제작과 의회보고과정, 조례개정 그리고 전국 많은 시군의 책자형 발간현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금년 1월부터 책자형태로 발행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향후 배부수량 감축, 격월제 발간고려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장배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대회의 경우 통상 5월께 개최하는 것으로,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할 경우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의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 인력이 부족해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경우 교통체증이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의결한 만큼, 의결된 예산을 최대한 짜임새있게 운영하면서 불가피할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21일 오전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 전에 있는 삭감예산안 찬반토론에서 김성식 의원은 시보는 시민들의 세금을 정보 제공으로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삭감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의결되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성희룡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창룡 시의원의 부의장직 사퇴 결의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만장일치 동의로 처리됐으며, 신임 부의장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강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외부의 법률적 판단을 지켜본 후 심사기로 하고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올 1월1일 대룡산 신년 해맞이 모습

2011년 신묘년(토끼띠 해) 해맞이 가보자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가 저물고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띠 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새해 첫날을 밖에서 새로운 각오로 뜻 깊게 맞이해 보자.

춘천시청 광장 제야의 종 타종식

시청 광장내 시민의 종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은 매년 2,000여명의 시민과 기관단체장, 시청 직원들이 참석해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의미깊은 행사다.

올해는 12월 31일 오후 6시(명동 거리)와 8시(시청 광장)부터 소망풍선 쓰기를 한다. 밤 11시 10분부터는 파워댄스와 전통 타악, ‘박’ 깨고 강강술래, 4인조 남성 중창 행사가 이어져 ‘아듀 2010’ 분위기를 달군다.

대망의 신년 0시부터 33번의 종소리가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멀리 울려 퍼진다.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하늘 소원 정원 만들기를 한다.

타종 참가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체장 위주에서 벗어나 춘천시민상 수상자 등 춘천을 빛낸 일반시민과 선행시민 등 24명이다.

행사 기간 중 시청 광장 주차는 안되는 만큼 무료로 개방되는 춘천여고와 새명동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 250-4277

대룡산 정상에서 신년 해맞이

춘천에서의 신년 해맞이는 대룡산 정상이 가장 인기 있다. 해발 899m로 춘천 근교 산 중에서는 가장 높고 춘천의 주 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매년마다 인파로 넘친다. 주 등산로인 고은리 버스 종점에서 많이들 올라간다. 이곳 주차장은 최근 포장공사를 마쳐 주차하기가 좋다. 그러나 워낙 차량이 많아 마을길 따라 길게 주차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산행은 랜턴을 챙겨 5시30분 이전에 출발하면 된다. 정상까지는 넉넉잡아 2시간.

금병산 해맞이 인파도 계속 늘어나

금병산(652m)도 최근 각광받는 해맞이 코스다.

이곳에서는 실례마을 주민과 신동 지역 관계자들이 오래전부터 정상에서 신년 해맞이 제례를 올려왔다. 각자 제수품을 들고 올라가고 석남순 마을 의용소방대장이 떡만두국을 준비해 해맞이 시민들에게도 나눠 준다.

제야의 종 타종식





더존 IT그룹 본관인 연구사무동

더존(DUZON) IT그룹 춘천에 둥지...

17개 계열사에 직원수 1,300여명인 국내 1위 소프트웨어 기업

내년 1월 준공식 입주...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벤처기업 육성 효과

남산면 수동리에 거대 IT그룹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춘천시의 첨단산업 기업유치 전략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인 더존(DUZON) IT그룹이 강촌캠퍼스를 만들어 춘천에 둥지를 튼다.

남산면 수동리에 그룹 강촌 캠퍼스 완공

강촌에서 창춘을 지나 가정리 소주고개 갈림길 3거리에서 왼쪽 추곡고개로 넘어가다 보면 대학캠퍼스 같은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언제 이런 게 만들어 졌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

7만여 평방미터(약 2만5,300평)의 부지에 연구사무동과 복지후생동, 기숙사동이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350억원을 들여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더존 IT그룹은 지난 91년 출범이후 합병을 거듭하며 현재 17개 계열사에 직원이 1,337명이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판매,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IT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주력 기업인 '더존 비즈온'은 주식시장에 상장

그룹 내 주력 기업은 주식시장 코스피에 상장된 더존 비즈온(BizOn)으로 국내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발 공급의 독보적인 사업체다.

더존 비즈온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610억원에 순이익 153억원. 올 연말까지 목표는 매출 1,460억원, 순이익 540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규모는 타 유명 IT 기업에 비해 크게 앞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계 1위다. 동종 업계에서는 더존 비즈온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성장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다. 더존 IT그룹은 앞으로 모바일 솔루션 사업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결제 대행 서비스 영역까지 넓혀 강촌 캠퍼스를 한국 소프

트웨어 메카로 탄생시킨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춘천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크다

더존 그룹의 춘천 이전으로 지역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에서는 춘천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IT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춘천의 첨단산업 경쟁력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강촌 캠퍼스 상주 직원은 전국에 있는 영업직원을 제외한 1,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이전 후 직원 배치 현황에 따라 신입 사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존 IT그룹에는 춘천지역 대학 출신 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됐다.

남면 남산면 산업단지 메카로 부상

더존 그룹 외에도 소주고개 방면의 남산면 창촌리에는 현재 전력IT 문화복합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최근 도로 확포장과 골프장 공사까지 가세해 남산면과 남면

일대가 상전벽해일 정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강촌 IC 및 경춘복선 전철 강촌역과 가깝다.

현재 서울 영등포 양평동이 본사인 더존 IT그룹은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약속하며 춘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후생동에는 당구장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유아놀이방 등 휴식 및 여가 시설이 다양하다. 더존 그룹의 이전은 현재의 서울 사옥이 좁아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춘천으로 낙점됐다. IT 기업으로 개발인력이 많은 탓에 쾌적한 청정 환경이 필요했고 고속도로와 전철 개통에 따라 교통이 편리해져 춘천을 수도권의 한 축으로 봤다는게 더존 그룹 측의 설명이다. 특히 김용우 회장이 춘천 출신이어서 입지 선정에 도움이 됐단다.

춘천시도 지속적인 첨단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해 산업단지 주변도로 확장 등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세계적인 IT 기업을 향한 큰 발걸음이 춘천 강촌에서 시작된다”며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후생복지동(앞)과 직원 기숙사





문화기획자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는 '낭만투어'

춘천중앙시장, 문화와 예술을 끌어안다

시장상인, 문화기획자, 시민이 어우러진 '춘천낭만시장' 으로 새단장

공간은 사람을 담는다. 따라서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지금 춘천중앙시장에서는 버려진 공간에 대한 재창조와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중앙시장이 201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춘천낭만시장'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춘천의 낭만이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 지원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5월에 시작돼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의 변화에 시장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죽어있던 빈 점포를 이용해 종합안내소 역할을 하는 낭만살롱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었다. 시장 라운지를 만들고,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고 문화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제일 크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

시장상인들이 시장의 주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기획자들에 의해 주도되던 낭만시장 프로젝트가 이제는 지난 11월에 결성된 '시장상인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빛나는 하루’집중적인 문화이벤트 열려

매주 주말이면 문화이벤트나 공연이 열리던 춘천 낭만시장에 지난 11월 27일에는 오후 내내 ‘빛나는 하루’란 주제로 집중적인 문화이벤트가 열렸다.

상인과 시민 모두 참여한 알까기 대회나 반짝 세일과 먹거리 체험 등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시장 안 곳곳에 조형작품들이 설치되고, 너비 1m의 좁은 골목 벽과 낭만갤러리에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순박한 일상을 애정 가득 담아 찍어 온 김남덕 사진작가의 사진들이 전시 되었다.

평소에도 오후 4시면(일, 월요일 제외) 진행되던 낭만지휘자의 퍼포먼스는 이날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겹게 들쭉여 놓았다.

또한 강원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여해서 문화기획자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는 낭만투어도 진행됐다.

이날 시장상인회는 일일찻집을 운영했는데 쭉고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에 동화돼 크게 터지는 웃음과 신명나는 어깨춤으로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일일찻집을 통해 얻은 50만원의 수익금은 12월 8일 춘천위스타트마을에 기부했다.

춘천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시장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다.

하지만 사람들이 와도 그동안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한편에선 이런 시장의 변화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시장에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이란 새 변화에 희망을 품어보자.

목소리 크고, 손도 마음도 큰 우리 할머니 같고 엄마 같은 시장상인들이 힘차게 문화와 예술을 끌어 안았으니 이제 춘천시민들이 나서서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동참해준다면 춘천낭만시장이 낭만의 도시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제 몫을 다해 주지 않겠나?

문의:254-5337

구제역 턱밑까지 춘천 방역 총력전



구제역이 춘천 인접 지역인 경기도 가평까지 확산(12월21일 현재)됨에 따라 시가 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는 12월 21일 시 경계와 불과 14km 떨어진 가평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각 농가의 방역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IC, 강촌IC, 남춘천IC, 조양IC, 경춘국도 강촌검문소, 사북면 지암리 등 6곳에 이어 이날 가평군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길목 2곳에 이동통제초소를 긴급히 추가 설치했다. 전 공무원을 초소에 투입해 24시간 현장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유입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구제역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살처분 매몰지와 인력, 장비 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연말 각종 행사 및 교육을 무기한 연기하고 직원들의 송년 모임도 자제시키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물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신고 : 축산내수면과 250-4727



소양 6교(위)와 세월교 사이로 흐르는 소양강

소양강 그리고 워나리 나루

허 단

지금은 물에 잠긴 소양강 상류로 올라가 보면 북산면 내평리가 있다.

그곳의 넓고 하얀 백사장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건너마을 온통 푸르던 밤나무 숲을.

내평리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양강이 넓은 백사장을 끼안듯 휘돌아 그렇게 명명한 것이 아닐런지?

지금은 댐이 들어선 소양강 하류로 내려오면 은모래 백사장엔 금빛 햇살이 눈부셨다. 강바람도 출렁거리며 흘러다녔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똑같은 소양강 이면서 워나리강이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다.

그리고 이곳엔 낡은 나룻배 한척이 강 양쪽 사람을 실어 날랐다. 워나리 나루였다. 춘천 동면 가산마을과 강 건너 신북면 샘밭장터를 연결하는 이 나룻배는 늘 반백의 뱃사공이 노를 잡았다.

요즘은 이 부근에 구멍 뚫린 다리를 놓고는 코구멍다리 또는 세월교란 이름으로 부른다.

나는 어린 시절 광주리 하나 가득 빨래를 머리에 이고 워나리 강가를 찾았던 어머니를 따라 강가에 나가 놀곤 했다. 모래톱에 물웅덩이를 파놓고 송사리 등 잔챙이 고기를 잡아 그곳에 가두고 풀어주는 것이 재미였다.

넓고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과 매끄럽고 예쁜 자갈들, 그리고 키 큰 미루나무들과 그 가지에 붙어 우짖는 매미소리들은 정말 얼마나 싱싱한 평화였던지?

강위를 스치듯 날으는 작은 물새며 높고 푸른 하늘의 솔개들도 모두 평화의 전령사들이었다.

지금은 소양강댐에서 방류되는 물이 수증기를 내뿜어 물안개가 자욱하다. 추운 겨울에는 주변 나무마다 서리꽃이 생기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샘밭 장터엔 많은 도시 장사꾼들로 북적

강 건너 저쪽에는 언제나 이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며 북적거렸다.

남자들의 고성과 여자들 웃음소리, 그리고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 등이 대합창을 이뤘다. 샘밭장터엔 많은 도시 장사꾼들도 몰려들어 북적거렸다.

쌀과 보리 수수와 조, 그리고 채소 과일 외에 호미와 팽이 등 농기구가 장터에 즐비했다.

울긋불긋 크고 작은 옷들이며 술집과 순대 국밥집 등이 장꾼들과 한데 어우러졌다.

소양강 상류에서 내려온 뗏목꾼들도 가세했다.

그들은 워나리 나루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마포나루로 훌쩍 떠났다.

나는 가을이 되면 소양강을 거슬러 오르는 버스를 타기도 했었다. 내평마을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초등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가 춘천에서는 두 번째로 생긴 학교란다. 내평리엔 그 밖에 면사무소며 우체국, 지서, 방앗간도 있었다.

강 건너편엔 잣나무 숲 울창한 물로리마을이 아름다웠다. 지금은 물에 잠겨 산꼭대기 부분만이 간신이 살아 남아 마을 선착장으로 변했다.

지금 워나리 나루엔 새로우면서도 낡은 소양 6교가 높이 솟아 길게 뻗어 있다. 옛 워나리장은 저무는 저녁노을에 조용히 몸을 뒤척일 뿐...

필자 약력

· 수필가
· 전 강원일보 논설위원
· 강원도문화상, 춘천시민상(문학) 수상

* 춘천의 옛날과 현재를 재조명한 봄내그림 연재를 마칩니다.
집필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양강댐 상류 수물지역



“경로당서 같이 지내니 한결 편안해요”

북산면 청평2리 홀몸노인 5명 공동생활가정 첫 입주
서로 벗이 되어 외롭지 않고 응급상황에도 대처 가능
춘천시 노인 복지 새모델 시도…반응 좋으면 확대

“나이 들어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고 겨울엔 난방도 여의치 않았지요. 한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니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푸근해 한결 지내기가 나아졌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한데 모여 의지해 살아가는 공동생활가정이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1월 25일 북산면 청평2리 산막골 경로당에서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자는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3명, 할머니 2명 등 5명이다.

기존 경로당 개보수 공동숙식 가능

이들은 각자 살던 집은 비워 두고 경로당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의 첫 케이스다.

춘천시는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했다.

이불장과 개인 사물함을 설치하고 식기류, 냉장고 등의 살림살이를 갖춰 줬다. 운영비와 난방비도 지원한다.

낮에는 다른 노인들과 경로당을 같이 쓰고 밤에는 이들 5명만의 주거공간이 된다. 농사철에는 낮에 각자의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같이 밥해 먹는다.

경로당과 입주 노인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돌본다. 부녀회에서 돌아가며 점심 밥상을 차려주고, 비어 있는 노인들 집을 가끔 찾아 청소도 해 준다. 경로당이 마을 한 복판에 있어 질병 등 긴급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청평2리 소양호 청정지역으로 가꾼다

입주 노인 중 최고령자인 김쌍출(87) 할머니는 “혼자 지내다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응급상황에도 대처해 주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춘천시는 공동생활가정 시스템을 농촌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킨 뒤 반응이 좋으면 다른 마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평2리는 소양강댐 수몰 지역으로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뱃길도 띄엄띄엄 있는 오지 마을이다.

정재일(57) 이장은 “청평2리는 소양호 인근 청정지역이어서 고령에도 정정한 분들이 많은 동네”라며 “주민 모두가 건강이 넘치고 살기좋은 농촌 마을로 만드는데 힘을 합치고 있다”고 했다.

문의 : 250-3554,

마을이장 017-373-3058



공동생활을 꾸리게 된 노인들이 활짝 웃고 있다.

자살예방·위기관리서비스 24시간 동안 전화상담 받아

도정신보건센터 1577-0199



자살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1월 22일 강원도정신보건센터(센터장 = 주진형)는 소설가 이외수씨를 제 1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씨는 한 때 자살충동을 느꼈으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트위터에 48만 명의 팔로어를 둔 유명인사가 되었다.

강원도정신보건센터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인의 재활,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에 문을 열었다. 각 지역 18개 시군의 지역정신보건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신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자살률 1~2위를 기록한 강원도이기에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24시간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강원대병원 정신과 의사인 주진형 센터장은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뇌는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에 안정화 되는 경향이 있기에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면서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생각한대로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오염된 우리 뇌를 깨끗이 청소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듯 하다.

문의: 251-1970

음식부터 생활용품까지 무엇이든 나눌 수 있어요

마트마다 ‘푸드뱅크’기부함 설치

연말이다. 웬지 연말이 되면 춥고 쓸쓸한 날씨 때문인지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된다.

자신도 무언가를 나누고 싶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실천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전할 반가운 소식이 있다.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식품기부인 푸드뱅크이다.



마트에 설치된 푸드뱅크기부함

이웃과 나눠먹기 위해 여유있게 만든 음식을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식, 부식, 간식이나 식재료 그리고 비누, 치약과 같은 생활용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푸드뱅크에 기부된 다양한 물품은 결식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재가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무료급식소나 사회 복지관 등에 배분되어 유용하게 쓰인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이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춘천의 롯데마트, 굿모닝마트, 벨몽드, 춘천·철원 축협하나로마트 매장에 가면 푸드뱅크 기부함이 설치돼있다.

그 안에는 1+1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 아니면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여러 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이 담겨있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면 대형마트의 입구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 곳에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사랑의 기부함이 있다.

문의: 262-3494

인장공예 ‘대한민국 명장’ 전국 6명 중 강원도 유일

평화인업사 신재진 씨



인장공예로 ‘대한민국 명장’이란 소리를 듣는 수는 전국에서 여섯 명에 불과하다. 그 중 네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대전에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있다. 올해 ‘대한민국 명장’이 된 신재진(66)씨는 46년 동안 인장업에 종사해왔다. 현재 평화인업사 대표이기도 한 신씨는 기존의 서체에서 벗어나 전서체를 도입하여 인장 서체에 생동감을 주고 예술성을 극대화 했다. 이것으로 1993년 우리나라 공모전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신씨는 그 이듬해부터 일본으로 눈길을 돌렸다. 매해 일본공모제에 도전하여 많은 상을 받으면서 한일 교류에도 공헌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신씨가 국내외에 출품했던 모든 작품들과 그의 손 때가 묻은 다양한 인장 도구들은 그의 평화인업사 2층에 마련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후진들의 기술향상에 기여하고자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신씨의 정신세계 또한 명장다운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주최의 전국 명장대회를 통해 167개의 직종에서 전국 496명의 명장이 있는데 그 중 강원도의 명장이 모두 4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보화는 스스로 빛을 내긴 해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자가 없을 땐 온전히 제 빛을 발할 수 없는 법이다. 보화를 몰라보는 자는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춘천에 더 나아가 우리 강원도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문의: 253-2625

전국 떡 명장 선발대회 대상 전통음식 · 문화 함께 전수

오감재 박정화 씨



지난 3월과 11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주최한 전국 떡 명장선발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차지한 박정화(58)씨는 떡 뿐만 아니라 한과, 폐백, 이바지 음식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폐백이며 이바지 음식을 직접 정성껏 만들어주던 박씨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에 전통 혼례음식 자격증(1급) 취득을 시작으로 떡·한과 과정을 수료하고, 제병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통음식 무형문화재인 정길자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박씨는 이 모든 과정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집 한 채 값을 날렸다하니 그 정성과 열정이 대단하다. 지난 9월, 박씨는 ‘오감재’라는 공간을 마련했다. 오감재는 박씨의 전통음식 연구소이면서 제작, 판매처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오감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막내딸 최미정씨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자식들 세대는 전통에 창의력을 조화시켜 더 멋지게 우리나라의 맥을 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몇 년 뒤, 고건축을 전공한 아들이 지어준 한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전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싶다는 박정화씨.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던 보화가 드러나 귀하게 쓰이 듯, 박씨 또한 이제 세상에 드러나 본인이 꿈꾸는 가치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해본다.

문의: 251-0704

‘일도 취미도 최고’ 불편 딛고 강스매싱!

김경섭(27)씨는 주식회사 인컴즈(대표 최용)의 직원이다. 네이버와 한계임의 회사 ‘NHN서비스’는 2007년 5월에 춘천으로 일부가 이전해 왔고 올 1월 4일 춘천기업으로 독립,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인컴즈란 새 이름을 달았다. 인컴즈의 검색DB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경섭씨의 무엇이 ‘우리직장 이런사람’의 주인공이 되게 했을까?

소여물 써는 커터기에 왼팔을 잃다

고향이 화천 하남면 원천리인 경섭 씨는 삼형제의 둘째로 태어났다. 온 동네방네 뛰어 다니며 놀기 좋아 하던 호기심 많은 유치원 시절, 집에 있는 소여물 써는 커터기에 왼팔을 잃었다. 성장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방황하며 많은 좌절을 느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그 때부터 수능을 준비해 서울에 있는 인덕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게 싫어서 대학생 때부터 의수를 사용했는데 경섭 씨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때도 바로 이 시기였다.

유승민선수 보고 탁구 시작 ... 올림픽 도전 꿈꿔

처음 탁구라켓을 잡았을 때 몸의 균형 잡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탁구 기술에서 50% 이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브를 넣을 때도 왼 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 오른손의 라켓 잡고 남은 세 손가락으로 공을 띄워 서브해야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를 악문 결과 올해 대전에서 열렸던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단식, 복식에서 동메달을 땀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성에서 있었던 제1회 금강배 클럽대항 오픈 탁구대회에서 40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남자 복식 우승, 단체전(춘천연합팀) 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경합해 얻은 결과라 더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체급에서 3위권인 김 씨는 올해 광주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고 했으나 국제대회 경험이 없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내년부터 국제대회에 나가 경험을 쌓아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피나는 노력 한 손으로 1분에 평균 300타

잠시 산림청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남는 시간에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3월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야간)에 입학했다. 인컴즈엔 올 6월에 입사했는데 4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인데다 90% 이상이 지역 사람들이라 회사 분위기가 가족같이 편하다. 이재경 팀장은 경섭 씨 업무가 하루종일 모니터 보며 자판을 치는 일이라 솔직히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최 대표의 적극 추천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섭 씨는 1분에 한 손으로 300타를 친다. 두 손으로 600타 이상을 치는 실력이다. 하지만 어찌 단순 비교가 가능하겠는가? 그의 말대로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진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생에 눈을 뜬 김경섭 씨. 그의 ‘피나는 노력’이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도 멋지게 먹히기를 기원한다.



긴긴 겨울방학, 다른 집 아이는 어떻게 보낼까?

길고 긴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학교 안가서 좋고, 늦잠 잘 수 있어서 좋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은 겨울방학이다. 하지만 집에 있는 엄마는 하루 세 끼 고박고박 챙겨줘야 하는데다 간식까지 신경 써야 하고, 다니면서 잔소리 해야 하는 피곤한 방학이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온통 신경 쓰이는 방학이다. 이 방학을 부모와 자녀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좀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집들이 어떻게 방학을 보낼 것인지 그 계획을 듣다보면 우리 집 방학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엄마와 자녀의 생각을 함께 실은 이유는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배려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엄마 생각

이윤정 (42 · 주부)

“4학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예요. 그리고 승우가 요즘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연습을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송양미 (40 · 춘천시립교향악단)

“여름방학 때 4박 5일 동안 한자캠프를 보냈었는데 힘들긴 해도 배워 오는게 많아서 이번에도 또 보낼 생각이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데로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갈 생각이고요”

황유숙 (44 · 자람전인학교 교사)

“전 이번 겨울엔 건강을 많이 챙겨주고 싶어요. 발레를 가르치고 싶은데 지원이가 남자애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김정숙 (42 · 문예당 대표)

“준호를 친언니가 살고 있는 미국에 보낼 생각인데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영어로 말하는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어책 20분 정도 읽고 일기만 잘 써준다면 실컷 놀아도 뭐라고 안 할거예요”

이회경 (41 · 주부)

“유상이가 스키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스키를 가르칠 생각이고,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미술학원에 날마다 보내려고 해요”

이숙자 (42 · 남춘천여중 특수교사)

“여정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도 다녀야 하고, 피아노랑 플루트도 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박 3일 정도 남해안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예요”

자녀 생각

정승우 (우석초 4년)

“스키캠프를 가보고 싶고, 작년에 교회에서 형, 누나들이랑 화천산천어축제를 갔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도 또 가고 싶어요”

송승석 (후평초 1년)

“눈썰매를 많이 타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엄마랑 도서관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강지원 (12 · 홈스쿨)

“눈썰매를 타러 가면 좋겠고, 클래식음악 위주의 콘서트장에도 많이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구경할게 많은 서울에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준호 (다인전인학교 4년)

“미국 이모네 집에 가는데 가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싶고, 미국에 안갈 때는 방학이라도 학교에 가서 형들과 신나게 놀고 싶어요”

이유상 (성림초 2년)

“스키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방학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수영도 하면 좋겠어요”

김여정 (소양초 6년)

“중학생이 되니까 제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함께 스키를 타러 가면 좋겠고, 지금 배우고 있는 플루트랑 피아노를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엄마표 간식'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엄마표 간식'인 거 아시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과 짧은 시간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간식들을 준비했어요. 긴 겨울 방학 엄마 잔소리에 지쳐 갈 아이들 마음을 맛있는 간식으로 살살 달래주세요. 만드는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다 보면 아이들과의 새로운 추억도 소록소록 쌓여가겠지요?



감자팬케이크

감자 큰 것 2개, 양파1/2개, 소금, 후춧가루 조금씩, 식용유, 파슬리가루 조금 (없으면 말고)

1. 감자와 양파를 가늘게 채 썰어 소금으로 간한 뒤 10분간 둔다. 10분 후 후춧가루, 파슬리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버무려준다.
2.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간 도톰하게 모양을 만들어 약한 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



감자버터구이

감자 중간 크기로 4~5개, 소금 조금, 버터 2숟갈, 파슬리가루 조금 (없으면 말고)

1. 껍질을 벗긴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을 넣고 삶아준다.
2. 삶은 감자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뒤 버터에 구워주면 된다.
3.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



단호박구이

단호박 1/2, 밀가루 3숟갈, 달걀 1개, 소금, 식용유, 계핏가루 (없으면 말고)

1. 단호박을 찜통에 익힌 뒤 단호박의 속씨를 제거하고 6등분으로 쪼갬다.
2. 썰어놓은 단호박에 소금을 살짝 뿌린 뒤 밀가루를 입힌다.
3. 달걀옷을 입힌 뒤 팬에 노릇하게 지져낸다. 뜨거울 때 계핏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



단팥죽

붉은 팥 1컵, 물 4컵, 소금 1/3숟갈, 설탕 4숟갈(입맛 따라 조절), 찹쌀물(물1/4컵, 찹쌀가루 1숟갈)

1. 압력솥에 팥과 물 3컵, 소금을 넣고 밥하는 만큼 끓인다.
2. 다른 냄비에 삶은 팥과 물을 붓고, 나머지 물 1컵과 설탕을 넣고 끓인다.
3. 팥이 터질 때 찹쌀물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맛있는 단팥죽 완성.



프렌치토스트

식빵 4쪽, 계핏가루(없으면 말고), 식용유 또는 버터, 달걀물(달걀 2개, 우유 1/2컵, 설탕 1/4숟갈, 소금 조금, 파슬리가루 조금)

1. 오목한 그릇에 재료를 다 넣고 고루 섞는다.
2. 식빵을 한 개씩 달걀물에 적신 뒤 달군 팬에 구우면 프렌치토스트 완성.



떡꼬치

떡볶이 떡 3줌(보통 천 원짜리), 식용유 조금, 사과 1/4개, 양파 1/4개

- 양념 (진간장 1숟갈, 조청 1숟갈, 참기름 1숟갈, 물 4숟갈)
1. 떡볶이 떡을 꼬치나 이쑤시개에 꿰고 사과와 양파는 잘게 썰어 양념장에 섞는다.
 2. 기름 두른 팬에 떡을 넣고 양념장을 앞뒤로 발라가면서 구워주면 완성.



라볶이

떡볶이 떡 3줌, 어묵 3장, 라면사리, 대파, 삶은 달걀 양념장 (고춧가루 1숟갈, 고추장 2숟갈, 물엿 2숟갈, 다시마멸치 육수 2컵)

1. 어묵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둔다.
2. 양념장에 라볶이 재료들을 넣고 잘 저어주면서 익히면 라볶이 완성.



고구마샐러드

고구마 2개, 다진 당근 2숟갈, 다진 양파 1숟갈, 꿀이나 설탕, 우유 적당량, 마요네즈 2숟갈, 소금 조금

1. 고구마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 얇은 그릇에 넣고 숟가락으로 으갬다.
2. 맛의 달기와 되기는 꿀(설탕)과 우유로 조절해 주면서 나머지 재료들을 함께 버무려주면 맛있는 고구마샐러드 완성.

* 고구마샐러드를 식빵 사이에 넣으면 고구마샌드위치가 됩니다.

향로산에 올라 춘천 사는 축복을 노래하다

전상국 (소설가·김유정문학촌장)



향로산 방면에서 보이는 춘천시 전경

하늘공원 아래 송암스포츠타운

춘천의 진산(鎭山) 봉의산에서 시작한 춘천분지 이어돌기 산행을 향로산(314.5m)에서 마치고로 한다.

칠전동과 송암동 사이에 위치한 춘천의 안산(案山) 향로산은 2010년 8월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를 치러낸, 우리나라 최대의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송암스포츠타운 뒷산이다.

레저경기대회와 때를 맞춰 산악인 엄홍길과 함께 한 산행축제 때 등산로가 정비된 향로산은 마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칠전동 군부대와 멸공훈련장 등이 있어 그 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향로산은 봉의산 안마산 국사봉과 함께 춘천 분지 그 안쪽에 위치한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좋은 산이다.

향로산에 오르는 가장 좋은 코스로는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 뒤쪽 언덕 산행안내판이 서 있는 〈하늘공원〉 전망대를 거치는 길이다. 멀리 다른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 정상까지 오른 뒤 칠전동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든가 온 길을 다시 되짚어오다가 〈우인정〉으로 내려오며 의암 호수에 시원시원히 눈 씻어도 좋으리라.

〈하늘공원〉에서 십분 거리에 있는 암반으로 된 작은 봉우리에 발길이 오래 머물 터. 춘천의 시가지 전경을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막히는 데 없이 제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선 순간 한눈에 잡히는 전경을 통해 누구나 춘천이 왜 호반의 도시인가를 알게 된다.

향로산을 오르노라면 그 일대 녹지야말로 춘천을 춘천다운 도시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숲이라는 생각을 하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오르기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향로산 정상에 전망대를 만든다면 춘천 관광 포토 존으로 그만일 터.

춘천, 사랑과 낭만 그리고 그리움의 키워드

춘천은 아름다운 성(城)이다. 북한강 물줄기를 허락한 남문의 수문장 삼악산이 춘천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비단병풍처럼 춘천 앞자락을 둘러친 금병산 자락에서 김유정의 동백꽃 향기를 맡으며 점순이를 만난다.

태백산맥의 서남쪽 마지막 줄기 대룡산 깃대봉 정상에서 춘천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춘천 사는 축복을 노래한다.

밑으로 터널이 뚫리고 있는 마적산에 올라 오봉산과 부용산을 향해 손 흔들어 그네들의 위용에 찬사를 보낸다. 샘밭 수리봉에서 세미고개를 거쳐 춘천댐까지 종주를 하며 옛 맥국의 기백처럼 뚫리고 있는 춘천 관내 우회도로 위에 춘천의 내일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

매운탕 골목 위쪽 샷갯봉에서 숨을 고른 뒤 경기도 가평과 접경인 가덕산 북배산 계관산 능선, 만리장성처럼 뻗어 내린 방화선의 갈대숲을 걸으며 겹겹이 산이로구나, 녹색 성장시대의 저탄소 무궁무진한 녹색탱크 미래의 춘천을 본다.

계관산 끝자락 옛 석파령, 춘천 처음 오는 이는 겹겹산에 질려 떨고, 떠나는 이는 어렵사리 정 떼어놓고 가는 소양강 처녀 생각에 울었을 그 고갯마루 가을별이 그림다.

춘천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 쉬고 싶은 고향의 원형이요, 문학적 상상력의 보고(寶庫), 뮤즈의 낙원이다. 분지 산행을 마치는, 남다른 감회를 한 구절로 적는다.

- 나는 춘천 사람이다!

사진과 동영상을 위해 산행을 함께 한 시보팀 김진영·장효윤 두 분과 다음 산행 계획을 얘기한다. 왜 우리는 안 찾느냐고, 그 동안 불멘소리로 항의하던 분지산 그 둘레에 있는 춘천의 또 다른 이름난 산 오르기.

※신묘년 내년부터는 춘천 분지산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 외곽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바랍니다.



향로산 전경. 앞이 칠전동 대우아파트



향로산 오르는 길에서 내려다 본 송암스포츠타운

친근함으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미술관



어린이회관에 자리잡은 갤러리 ‘스페이스공’

갤러리 스페이스공(회장=안광준)은 삼천동 어린이회관에 자리잡고 있다. 화랑 같은 분위기의 갤러리 스페이스공은 춘천민족미술인협회의 전시 공간이다.

민족미술인협회는 1995년에 결성되어 현재 춘천에는 37명의 회원이 있다. 협회의 이름이 말해주듯, 처음엔 제도권 미술에 대한 반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명, 평화, 환경과 같은 주제를 어렵지 않게 구상으로 많이 풀어내고 있다.

어린이회관에 있다보니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고, 그곳에 갤러리가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원전 외에도 ‘생활의 발견 도예전’이나 ‘춘천의 인물전’, ‘춘천의 오래된 풍경전’ 등

과 같은 기획전을 마련해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갤러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춘천민족미술인협회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해 협회 구분 없이 강원도의 미술인 143명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강원도 미술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강원도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연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강원도 출신 작가 14명에 대한 결과가 책으로 묶어졌다. 일본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권진규 조각가 외에도 박수근 같은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동욱 사무처장은 “그동안 강원도의 문화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화 작업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미술계에서 이제 부터라도 시작하니 다행”이라며 기쁜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만들어진 어린이회관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또한 시민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는 갤러리 스페이스공의 노력에 춘천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로 화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의:070-8275-0220

<http://gangmi.co.kr>

춘천국립박물관에서 만나는 ‘춘천의 추억과 낭만’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과 역사... 내년 2월 13일까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춘천국립박물관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새해 2월 13일까지 ‘춘천의 추억과 낭만’ 특별전을 준비했다.

‘춘천의 문화예술’과 ‘춘천의 근현대 역사와 성장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춘천의 추억과 낭만, 아름다움을 소재로 한 근현대 유물 150점이 전시된다.

문의:260-1500



동화 속 주인공들이 움직이고 말을 한다고?

3차원 입체아트 동화체험전 열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진도 찍어

12월 31일부터 새해 2월 24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3차원 입체아트 동화체험전이 열린다.



강원엔터컴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크게 착시미술존과 조명 조형물존, 동화 주인공 움직임존으로 구분된다.

착시미술을 이용해 다양한 동물이나 인물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며, 동화 속 주인공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낮에는 캐릭터, 밤에는 조명 효과를 볼 수 있다.

로봇센서와 오디오를 활용해 동화 속 주인공들이 움직이고 말하는 3차원 입체아트 동화체험전을 통해 아이들은 눈으로만 읽던 동화를 손과 온 몸으로 느낄 뿐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사진도 찍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문의:252-2178

초대형 국악뮤지컬 ‘절기 전계심’

춘천의 여인 전계심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강원소리진흥회(이사장=이유라)와 유라예술단 60여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한 초대형 국악 뮤지컬 ‘절기 전계심’ 공연이 지난 12월 17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춘천 봉의산 기슭에서 태어난 전계심은 신임 춘천부사 김처인의 눈에 들어 그의 소실이 된다.

그러나 김처인이 삼척으로 발령나고, 그와 헤어져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살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자결을 한 전계심의 이야기다.

철저한 고증과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올 창작소리극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절기 전계심’은 최윤필 전 춘천민예총회장이 예술감독을, 박종철 한국창극원 대표가 연출을 맡고, 대본은 한

명희 강원대 교수가 썼다.

이유라 이사장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내년에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순회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흑백사진 속에 재생된 100년의 기억

경성감옥 춘천분감 사진전 열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역사의 현장이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 속에서 30여 년을 기다리다 세상에 공개됐다.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춘천시문화재단 특별전시실에서 열린 ‘100년의 기억-경성감옥 춘천분감’ 사진전엔 사진작가 류은규(48) 씨가 83년에 찍

어둔 옛 춘천교도소 사진 60여점 중 20점이 전시됐다. ‘경성감옥 춘천분감’은 춘천교도소의 옛 이름이다. 일제가 서대문 경성감옥의 수용인원이 증가하자 1909년 춘천시 약사동에 개설한 최전방교도소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100년 역사의 현장이다.

밤마다 동네를 환하게 비추던 감시대서치라이트, 총 20개의 감방이 있던 옥사동, 죄수가 늘어 3명이 함께 썼다는 4㎡(1.21평)독방. 사진들은 단순 이미지 이상의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들려줬다.

지금 교도소 자리는 아파트단지가 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류 작가의 흑백사진만이 잊혀져 가는 기억들을 선명하게 재생하고 있을 뿐이다.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강의실 대신 무대 위에 뜬 교수님들

한림대 ‘늦바람 교수밴드’와 ‘옥천동일번지’ 직원밴드 정기자선공연



지난 12월 1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은 밴드의 노랫소리와 학생들의 함성으로 채워졌다.

2004년에 창단된 ‘늦바람 밴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수밴드로 자리 잡았다. 이날 공연에는 최수영(바이오메디컬학과: 드럼), 최성찬(환경생명공학과: 리드 보컬 & 기타), 정혜선(심리학과: 키보드), 장희정(간호학부: 베이스), 심유석(전자물리학과: 기타) 교수가 참가했다.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 7080 노래보다는 리메이크곡을 준비했다. 교수들은 가발을 쓰고 연주에 전력을 기울였고 학생들은 노래에 맞춰 야광막대를 흔들며 환호했다. 홍승희 (21) 학생은 “교수님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좋았다.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데 쓰였다. 늦바람 교수밴드는 자선공연을 통해 사회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함께 공연한 직원밴드인 ‘옥천동일번지’도 2004년 창단됐다. 공연구성원은 정항섭(아트미디어팀: 기타), 이임찬(특수대학원교학과: 기타), 신성열(전산운영팀: 보컬), 김영인(수인제약: 보컬), 신혜진(NICE-CARE사업단: 키보드), 이경재(의료관광인재양성센터: 드럼), 김동회(컴퓨터공학과 교수: 베이스 & 기타)이다.

함혜인 명예시민기자

추억한토막



1930년대 춘천농고 교실 점심시간



사진제공=최덕중

일제 치하인 1930년대 겨울,
춘천농고 교실의 점심시간 풍경이다.
검정 교복에 식발한 학생들의 밥
먹는 자세가 군대처럼 절도와 질서
가 있다.

도시락은 군대 야전용으로 사용했
던 손잡이 달린 수통형이다.

나무 책걸상은 2인용이 아닌 1인용
이고 한 세트로 고정돼 있어 특이하다.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학생들의 표
정에서 향학열에 불타는 결연한 의지
가 엿보인다.

이달의 좋은 책 |

추천 = 춘천시립도서관



〈브리다〉
파울로
코엘로著
문학동네 판

‘연금술사’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뚾 선 작가 파울로 코엘로의 신작 ‘브리다’.
‘연금술사’ 직후에 집필한 운명과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운명을 찾아나선 스
무 살 브리다가 사랑을 찾고 더 나아가 자아
를 발견하면서 변모해가는 가슴 뭉클한 여정
을 그렸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著
샘터사 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신체의 아픔을 희망으
로 이겨낸 장영희의 이야기 ‘살아온 기적 살아
갈 기적’. 암 투병과 장애 등 암울해지기 쉬운
소제들을 긍정적인 유머와 위트로 펼쳐내는
독특한 그녀만의 에세이가 펼쳐진다. 이 책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내 생애 단 한 번’ 이
후 9년 만에 내놓은 그녀의 두 번째 순수 에
세이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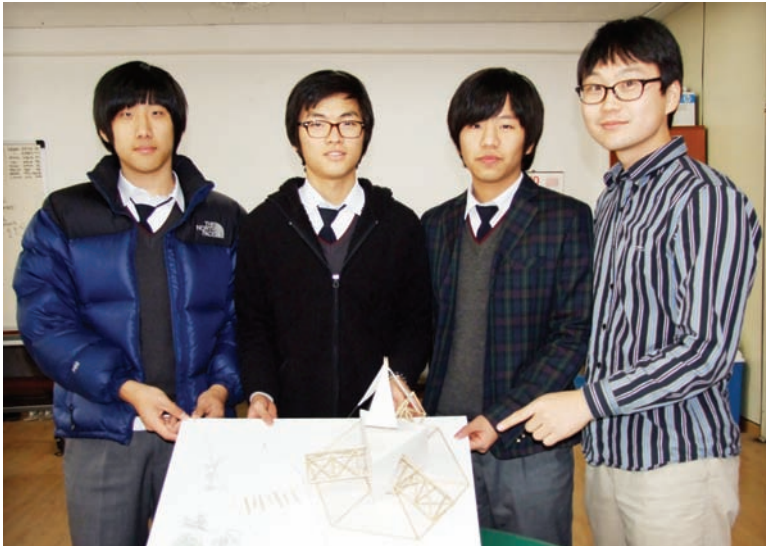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장정일著
마티 판

‘아담이 눈뜰 때’, ‘너에게 나를 보낸
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등의 소설
로 잘 알려진 장정일의 여덟 번째 독서일
기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기존의 독서
일기가 독서와 무관한 일상의 이야기를
포함한 거의 매일 쓰인 전형적인 일기형
식이었던 반면, 이번 책에서는 저자의 일
상은 거의 완전히 배제한 채 책읽기의 방
법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깨달음 얻었어요”

‘제 1회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춘천기계공고 학생들



지난 11월 24, 25일 충남대학교 주최로 ‘제1회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가 열렸다. 전국의 39개 고교생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춘천기계공고(지도교사=김재영, 이고은) 2학년 목진민과 유정민, 1학년 김필수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들이 정해진 재료로 7시간 만에 완성해 낸 ‘전망대’ 작품은 창의성과 구성기술, 그리고 미래 공간의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학 재학생들 및 관람자들의 호응도 높아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만들어 보니까 모형도 나오고, 발표도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하니까 되는 걸 보면서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목진민) “이번 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 (유정민)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김필수) 이렇듯 학생들은 대상 수상 외에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었다.

한편 지난 11월 11, 12일 대구미래과학대에서 주최한 전국 고교생 측량대회에서 춘천기계공고 측량과 학생들이 금메달 3개와 우수상을 차지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문열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아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지난 11월 (구)만천초등학교 자리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 째로 문을 연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내 유아와 교원, 학부모의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과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

립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유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도담체험관’이 있으며, 교원연수, 학부모 연수, 교육상담실과 문헌정보 자료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의 단체체험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부모를 동반한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20명 내외의 개인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033)815-2120 홈페이지:<http://www.gwch.go.kr>

공윤자 명예시민기자

시린 가슴 녹이는 사랑의 하모니

노래로 봉사하는 춘천교육 삼락회합창단



지난 2004년 6월 현재 단장이면서 지휘를 맡고 있는 김태근(72) 씨 등 뜻 있는 분들에 의해 창단된 춘천교육 삼락회합창단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직 교육자들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이다.

올해로 만 6년째 접어드는 합창단은 그동안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 춘천 효자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가 위문 공연을 했고 때로는 실버 가요제 등 수많은 가요제에 찬조 출연도 했다.

새해부터는 혼성팀으로 합창단을 조직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문의: 256 - 3707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연탄 1장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남녘과 북녘의 어려운 동포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지난 2004년 6월에 만들어졌다. 2008년부터 연탄나눔을 시작한 춘천지부는 지난 11월27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와 ‘볼런티어 액션데이’라는 이름으로 소양로1가 34가구에 총 6,800장의 연탄을 나눠 주었다. 12월 11일엔 고습도치شم을 개발 중인 BTB재단의 후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위로의 집’과 춘천시 80가구에 2만2,000장의 연탄과 20kg 쌀 220포대를 전달하여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했다.

정한길 명예시민기자

공지천 1년간 청소하며 쓴 작품들 엮어

시와 수필 동아리 빛글문학 ‘하늘, 열리다’ 출간



둘째와 넷째주 토요일 새벽 6시면 ‘빛글문학’(회장 김진숙) 회원들이 공지천 주변으로 모여든다. 이들은 시와 수필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동아리로 처음엔 각자의 습작품을 갖고 여러 의견을 나누는 모임

으로 시작했지만 의미있는 일도 하자는 취지에서 공지천 주변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는 동절기를 제외하곤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각공원 청소를 마무리한 지난 12월 3일 이들은 그동안 써왔던 작품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조출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하늘,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는 14명이 1년 동안 청소하면서 그려낸 작품 62편이 담겨있다.

‘빛글문학’은 겨울철에는 청소 봉사 대신 평범한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예정이다.

문의: 010-2637-4927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한림대 의대생 MBC대학가요제 대상 차지

본과 2년 이인세 씨“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밴드 활동 계속”



“의사의 꿈을 접을 수는 없지만 음악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환자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요”

한림대 의대생이 2010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차지

해 화제다.

이인세(22·의학 본과 2년)씨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덕성여대에서 열린 제34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위드 유(With You)’를 열창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네티즌들이 선정하는 인기상까지 수상해 상금 500

만원과 부상으로 노트북을 받았다.

이번 대학가요제는 3차까지 치열한 예선을 거친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위드 유’는 외롭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혼자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이씨는 이날 출전팀 중에서 유일하게 통기타를 들고 나와 발라드를 부르며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을 뽐냈다.

“고교(울산 현대청원고) 시절부터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고 의대에 진학한 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 고교 친구들과 밴드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 왔다”는 이씨는 “꿈에 그리던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고 환히 웃었다.

또 “수많은 인기 가수를 배출한 대학가요제인 탓에 가요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한 섭외도 들어오지만 학기말 시험 등 학업 일정이 워낙 빡빡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행복한 고민을 토로했다.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담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독후 · 체험활동 열려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전시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주최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담작은도서관(관장 김성란)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다양한 인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20여권의 어린이인권도서를 전시했으며 전시기간 동안 그림자공연 및 체험활동, 원화 전시, 인권영화상영회, 인권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독후 및 체험활동 등이 개최됐다.

그림자극에는 ‘내이름은 쏘카’ ‘무지개물고기’ 두 이야기가 선보였는데 임윤숙씨(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는 “연필은 나무로 만들지만 재활용 종이로도 만들 수 있어요.”라며 왕따, 다문화 등의 요즘 주변 생활 모습들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2125-9681~3

최영숙 명예시민기자

한지공예 무료강좌 인기

춘천시립도서관서 시민 30여명 참여

지난 10일 춘천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강좌’를 무료로 열었다.

이날 30여 명의 사람이 도서관의 회의실에 모여 2시간여 동안 강좌를 들었다. 강원공예 문화연구소의 김근숙 씨가 고서만들기를 지도했다.

강좌는 종이로 할 수 있는 공예들을 소개하고, 직접 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합지에 한지를 싸고 실로 엮어 책을 만들었다. 시민은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함께 온 유아

들도 엄마를 따라 고서를 만들었다.

이영실(38·만천리)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왔다. 한지의 느낌이 좋았

고,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웠다. 집에 돌아가서 실내 장식이나 소품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고발

김유정 앞 실내마을 표지석명 ‘실레마을’로 바로 잡아야



김유정의 소설로 유명한 소설 속 주무대인 실레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이 실내마을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실레마을은 산자락의 지형이 마치 떡시루를 엮어놓은 것과 같다하여 붙여진 마을명인 만큼 실레마을의 표지석명을 원래의 이름대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황순옥 명예시민기자

이것만은 지킵시다 |

전철 안에서의 에티켓

지난 12월 21일 71년만에 역사적인 경춘복선전철이 완공 개통됐다. 봄내씨가 추천하는 전철안에서의 에티켓을 알아본다.

- ▶ 큰소리로 혼자 있는 양 통화 안하기
- ▶ MP3 이어폰 볼륨 최대로 높여서 듣지 않기
- ▶ 핸드폰 올 때마다 벨소리 찌렁찌렁하게 울리지 않게 하기(진동모드 전환)
- ▶ 핸드폰 TV보면서 볼륨은 이어폰으로 듣기
- ▶ 내리기 전에 밀고타지 않기
- ▶ 다리 짹 벌려서 옆사람 피해주지 않기
- ▶ 아이 떠들고 뛰어다니게 놔두지 않기
- ▶ 애완동물 데리고 타지 않기(부득이한 경우 전용상자 사용)



권혜경 | 특강리플

● 효자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회원 20여명은 12월 15일 다문화가정 주부 및 노인정 할머니들을 초청해 만두 함께 빚기, 떡 썰기 등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만들어진 만두와 떡은 다문화가정과 노인정에 나눠주었다.



● 강남동 부녀회는 12월 2일 주민센터에서 독거어르신 10여분을 모시고 생일상차림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녀회는 손수 정성들어 음식을 만들었으며, 내복을 선물로 전달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 근화동의 성우포장상사는 12월 14일 주민센터에 TV(47인치, 14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 동춘천로타리클럽 회원들은 11월 21일 신북읍 오탄리의 180가구를 대상으로 회원들이 운영하는 한진전업사, 태산건설 외 여러 직원들이 참여하여 전기배선 및 등 교체를 실시하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원지사는 12월 11일 동내면 사암4리에서 농기계,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문패제작, 영정사진 찍어드리

기 등 기능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에서는 12월 15일 춘천우체국의 후원물품 전달과 함께 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은 2010년 쉼터보호아동 정서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우체국 직원들과 아동들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 후평3동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산악회)일동은 12월 8일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금(360만원) 전달행사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직능단체 회원들은 11월 27일 은하수거리에 있는 타이타닉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행사를 가졌다.



● 후평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춘천김치은행은 12월 8일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상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 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12월 16일 춘천소방서에서 2010년도 결산보고와 우수의용소방대 상상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스타트춘천마을 과 연평도 피해주민돕기 성금으로 각 50만원을

기부하였다.

● 대한줄넘기연맹춘천지부가 11월 28일 지부창립식을 갖고 음악줄넘기 자격증반 운영 등 활발한 사업에 들어갔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춘천시니어클럽은 12월 15일 '2010년도 한국시니어클럽 연차표창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사랑과 도움을 주신 분들〉

●대한불교 진각종 방등심인당(김장김치 36박스), 명동 우미닭갈비(쌀20kg 88포대), 신사우동 영광교회(연탄 2,000장), 동춘천로타리클럽(300만원), 적십자사 춘천시여성봉사단(쌀10kg 7포대), 신사우동 초록마을 식당(100만원 상당 식품), (사)아름다운 동행 춘천김치은행과 후평3동 통장협의회(김장김치 1,650포기), 후평3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다문화가정주부 2명(고추장2kg 짜리 100통), 소양강댐관리단 봉사단체 소양호큰바위(연탄 2,000장과 생활용품), 금호건설SH건설 현장사무소(100만원), 현대모비스(주) 춘천부품센터(150만원 상당 생필품), 석사동 방위협의회장(10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 금호타운아파트부녀회(20만원 상당 생필품), 신북읍 출신 시청재직 공무원 모임 신공회(쌀20kg 20포대), 효자2동 보현사(라면 5상자와 쌀 100kg), 춘천중앙교회(김 100만원 상당), 후평장로교회(쌀10kg 80포대), 소양강 주민자치위원회(160만원 상당 위문품)

*이밖에 많은 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제219회 정례회 10분 자유발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기반한 예산안 작성 필요



박완주 시의원

제출된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해 본 바로는,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서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의 세입전망 중 지방세의 시세규모는 전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에서는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세입전망에서는 지방세의 시세규모가 소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침 및 기준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놓고 이러한 전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춘천시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세출예산은 누구든지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세입재원을 찾

아서 단돈 1원이라도 더 편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춘천시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세입예산을 보면,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항구적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자주재원 확충에는 조금도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재원 중 늘여야 할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5%, 사용료수입 12%, 이자수입은 28%나 감소되는 등 자주재원의 주를 차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9%나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줄어들어야 할 재산매각 수입은 2011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무려 117%나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자주재원 확충을 못하겠다는 태도를 팔아서 총당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예산편성 산출기초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출될 때까지 의회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기품있는 자세...



민성숙 시의원

최근 북한의 의도적인 연평도 포격으로 국군 장병과 아무 죄 없는 민간인까지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전대미문의 도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해병대 장병 및 민간인 가족 여러분께 진정어린 마음의 위로를 보내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령 앞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그리고 춘천시민 여러분!

문화예술 및 한류열풍의 근원지로 많은 국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춘천은 누구나 한 번쯤 꼭 방문하고픈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춘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화자의 평소 인격과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

인 표현 방법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듣기에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건 단체장이건 하나 같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품위 있는 말은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며 때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시 돌린 독설이나 상대를 무시하고 배려함이 없는 거친 말은 상대에게 상처와 오해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27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말은 더더욱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변명과 사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신이 저지른 이번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소식



◎ 제219회 정례회 개최

춘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219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 집행부 업무실적 보고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연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는 2010년 마지막 정례회이다.



◎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건의서 채택

춘천시의회는 제21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황환주 의원의 대표로 12인이 공동 발의한 ‘경춘선 민간위탁의 철회 요청을 위한 춘천시의회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출하였다.

건의서의 내용은 경춘선 복선전철의 유지, 보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면 민간업체에서는 공공성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계획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심/희생/공감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2010년의 눈물과 작별...
그리고...
행복한 2011년과의 조우

”

◎ 의원발의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황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하여 발의한 조례로, 춘천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서울시 노원구 등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같은 규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1,296세대가 세대별로 연간 2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춘천시의회는 시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 의원발의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황찬중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하여 발의한 조례로, 전통상권의 500m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12월 6일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내무위원회 조례안 심사

내무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제219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는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사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조례안심사 및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제2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 수도급수조례안에서 수도요금을 20% 인상하는 것을 10%로 감액조정하여 가결하는 등의 심사활동을 벌였다.



강습·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10.12.31까지

□ 수강기간 : 2011.1월~3월

교통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선납

(웃음치료 1만5천원) ※ 65세 이상 50% 감면

□ 문의 : 250-3612

프로그램	운영일정	
서예	월·금	09:00~12:00
노래교실	월·수	14:00~15:30
웃음치료	월	10:00~12:00
요가	화·금	10:00~11:30
민요	월·수	14:00~16:00
야생화교실	화·금	14:00~17:00

근화동

□ 수강료 : 무료

□ 기타 : 댄스반 이종등록금지, 사물놀이 반 신규자만 접수 □ 문의 : 250-3615

프로그램	운영일정	
댄스초급	월·수	10:00~12:00
댄스중급	화·금	10:00~12:00
요가교실	화·금	14:30~16:00
사물놀이	월	14:00~17:00

소양동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선납)

□ 문의 : 250-3611

프로그램	운영일정	
요가교실	수·금	10:00~11:30
벨리댄스	월	10:00~12:00
	목	13:00~15:00
라인댄스	화·금	14:00~16:00
민요교실	월·수	10:00~12:00
노래교실	월·수	13:00~15:00
무료탁구교실	금	16:00~18:00
무료게이트볼	월~금	15:00~16:00

약사명동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단 장수춤과 웃음교실은 1만5천원 선납(*과목별 동시 수강 할인됩니다.) □ 문의 : 250-3614

프로그램	운영일정	
노래교실	월·수	10~12시
한국무용(초급)	월	15~17시
	화	13~15시
한국무용(중급)	화	15~17시
	목	10~12시
장수춤체조A	월	10~12시
장수춤체조B	금	10~12시
웃음교실	금	10~12시
라인댄스(중급)	월·수	13~15시
라인댄스(초급)	목·금	14~16시

퇴계동

□ 수강료 : 3만원(단, 65세이상은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문의 : 250-3623

프로그램	운영일정	
댄스스포츠(초급)	화·목	09:00~11:00
댄스스포츠(중급)	화·목	11:00~13:00
노래 및 체조	월·수	13:00~15:00
농악교실	화·수	19:00~21:00
춘천그린악단	목·금	10:00~12:00
기타교실	수	10:00~12:00
	목	15:30~17:30
서예교실	화·금	14:00~16:00
라인댄스	화·목	13:00~15:00
동아리하모니카	화	10:00~12:00
댄스	금	13:00~15:00
오카리나	목	13:30~15:30

효자1동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 문의 : 250-3619

프로그램	운영일정	
노래교실	화·목	10:30~12:30
통기타교실	수·목	13:00~14:50
댄스스포츠	수	10:00~11:50
	목	13:00~14:50
한국무용(중급)	월	10:00~11:30
	수	14:00~15:30
한국무용(초급)	월	13:30~15:00
	수	12:30~14:00
요가	화	11:00~12:50
	목	11:00~12:50
무료웃음치료	수	10:00~11:30
무료게이트볼	수	14:00~16:00

효자2동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단, 실버댄스 65세이상 2만원 ▶ 2과목 신청시 5만원 (65세이상 3만원) □ 문의 : 250-3620

프로그램	운영일정	
노래교실	수·금	10:00~12:00
실버댄스스포츠	화·금	11:30~12:30
기초댄스스포츠	화·금	09:30~11:30
요가	월	15:00~16:00
	수·금	14:00~15:00
탁구(오전)	월·목	09:30~11:30
탁구(오후)	월·목	13:00~14:30
		14:00~16:30
민요	화·목	10:00~12:00

효자3동

□ 수강료 : 3개월 2만원

□ 문의 : 254-6119

프로그램	운영일정	
한국무용	수	10~12시
	목	10~12시
탁구교실	월	15~17시
	수	15~17시
노래 및 체조교실	화	14~16시
	금	10~12시
요가	화·수·금	9~10시
	화·금	17:30~18:30

후평2동

□ 과정명 : 사군자교실(초급 5명)

□ 일정 : 주2회(수·금 14~16시)

□ 문의 : 254-6112, 253-9321

후평3동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프로그램	운영일정	
산수화	월·목	10:00
수채화	수·금	10:00
무료 천연비누·화장품/아로마향초	화	10:00
탁구(초급)	화·목	14:00
탁구(중급)	화·목	15:00
건강체조	화·목	10:00
댄스스포츠	수·금	10:00
노래	월	16:30
요가	수·금	17:00

시립도서관 강좌

■ 1월 인문학 강좌 : 매주 목(19~21시)

강사 전상국 소설가

■ 영어동화 : 방학기간(화~일 11~12시)

■ 동네도서관 중학생특강 : 뇌활용 자기 주도학습(1.18~1.21 박민수 교수, 이해곤 연구소장) ■ 문의 : 250-3468

수화무료교실

□ 신청기한 : 2011.1.7까지

□ 강의일시 : 1.10~1.21(9~12시)

□ 강의장소 : 계성학교(256-4651)

소양정보도서관

□ 프로그램 : 어린이INIE, 초중등독서논술, 예쁜 손글씨, 애니메이션교실, 이야기한국사, 가족신문, 독서신문 등 □ 대상 : 초중고생

□ 개강일 : 2011.1.5~ □ 문의 : 258-6636

춘천시생활체육 프로그램

□ 종목 : 스쿼시, 박종환축구클럽(유아·초중등부),

다이아트밴드운동, 여성배드민턴, 스키

□ 문의 : 시생활체육회(264-5750)

호반테니스장 무료강습

□ 강습기간 : 12.20~(2개월간)

□ 강습요일 : 월·화·목(수시모집)

□ 상세문의 : 264-0279

춘천시 청소년문화의집

□ 프로그램 : 청소년토론아카데미, 학생드림, 성인드림, 해금, MSL어린이스피치, 과학창의교실(로봇), 수리과학 창의교실, 섬유공예, 문화예술체험마당, 자기주도학습법, 어린이철학교실

□ 개강일 : 2011.1.5~
□ 문의 : 258-6632 (홈페이지 참조)

춘천시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 겨울1박2일캠프, 영어마을캠프, 항공우주과학, 방송국 들여다보기, 국가기관들, 대법원 견학, 서울대와 성균관, 유스오케스트라, 필리핀 영어연수
□ 기간 : 프로그램별(1.10~2.23)
□ 문의 : 244-1387

모집·신청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11.2.14~7.1(5개월과정) ▶2011.2.14~5.6(3개월과정)
□ 교육과목 : 컴퓨터, 회화 등 44과목
□ 대상 : 만19세이상 거주시민(남성도 접수가능)
□ 기간 : 2011.1.14~1.21(인터넷접수)
춘천시청홈페이지·바로가기서비스·여성회관·교육접수안내·수강신청
□ 문의 : 250-3540

한국방송통신대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 법학과 등 22개학과
□ 기간 : 인터넷 접수(12.1~2011.1.12)
□ 문의 : 1577-2853(홈페이지 참조)

한림성심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 관광영어학과 등 8개학과
□ 접수기간 : 12.20 ~ 11.1.26
□ 문의 : 입시지원팀(240-9007)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생모집

□ 운영기간 : 2011.3~2012. 2
□ 모집마감 : 2011.1.31
□ 자격 요건 : 방과후 사교육 미수강 가정(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자녀·맞벌이가정 우선 선발)
□ 문의 : 도청청소년수련관(255-6604)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11.2.7~6.17
□ 모집인원 : 40명
□ 대상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13개사업
□ 접수기간 : 2011.1.3~1.11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구직등록증 : 춘천고용센터 발급(250-1909,1919) ②공공근로사업 신청서 ③건강보험증 사본 ④장애인 증명서류(해당시)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임금 : 1일 3만8천원(부대비 포함),
주휴수당(3만5천원)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18시), 주 5일 근무
□ 문의 : 춘천시 경제과(250-3354, 3421)

춘천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 과정 : 제과제빵기능사, 전산회계, 주얼리공예 등 15개 과목 이상

* 수강료, 개강일자, 훈련시간은 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www.ccwomen.or.kr)

□ 문의 : 243-6474

장구 수강생 모집

□ 일시 : 매주 화(10~12시)
□ 장소 : 어린이회관
□ 문의 : 010-3693-2281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2.1~2011.1.31
□ 사업대상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 내용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 지원
□ 문의 : 춘천시 농정과(250-3767)

농어촌자녀 소양학사 입사신청

□ 입사기간 : 연중 수시접수(공실 시)
□ 입사자격 : 춘천지역 소재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농어촌 자녀
□ 비용 : >입사보증금 17만원(퇴사시 환불) >관리비 : 월9만원(2인1실), 월18만원(1인1실) >식비 : 1끼니 당 1,300원
□ 신청 : 춘천시 기획예산과(250-3866)

2011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포스터 공모

□ 공모기간 : 12.6~2011.1.31
□ 작품규격 : CD형태(A파일, 공모서식), 칼라시안(A3)
□ 공모내용 : 막국수·닭갈비 한식세계화와 축제의 의미를 함축한 내용
□ 문의 : 250-4347~8

공연·보건·행정

극단 '굴레' 공연안내

□ 공연명 : '엄마열전'(이상수 연출)
□ 공연일시 : 2011.1.8~1.9(16시, 19시)
□ 공연장소 : 굴레소극장
(요선동 한신아파트 정문 위)

만화영화 무료상영

□ 장소 : 애니메이션박물관
□ 일시 : 12월30일(11시/13:30/16시)
□ 상영명 : 마루 밑 아리에티
□ 문의 : 245-6470

보건소 구강보건사업(259-1830)

①노인무료틀니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1.1.3~1.31
□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 : 초등1~4학년

화장(火葬)예약 실시

□ 실시 : 2010.12.8부터
□ 예약주소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 문의 : 춘천시 복지과(250-4004)
춘천시립화장장(261-7314)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 내용 : 내년1.1부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
□ 대상 : ①업소(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의자·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제조업소) ②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 문의 : 국민건강보험(1577-1000)

식품위생교육

□ 교육월일 : 2011년 01월 06일
□ 교육장소 : 춘천시여성회관
□ 문의 : 춘천보건소(259-1776), 한국음식업중앙회도교육원(255-7559)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 기탁가능 사람 : 개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 방법 : >인터넷(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방문, 팩스, 전화이용
□ 예금계좌 : 농협 203-01-531649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제혜택 :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254-3066)

'희망2011나눔캠페인' 성금모금

□ 기간 : 12.1~2011.1.31
□ 목표 : 3억5천여만원
□ 참여 방법 : ▶시청 복지과, 읍·면·동사무소 ▶방송국 ▶ARS 060-700-1212(1통화당 2천원)
□ 모금계좌 : 농협 203-01-448497/강원도공동모금회

□ 세제혜택 : 개인→100%소득공제, 법인→소득금액의 50%소득공제

비상대피시설 알아보세요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동네 가까운 대피시설을 춘천시 홈페이지(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재난방재과 250-3267)

문화 예술이 소통하는 슈퍼시티

낭만도시 춘천

새로운 수도권시티

강원도 중심

춘천이 12월 21일 경춘복선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성장엔진 가동과 함께
성장기반 멀티시티로 미래지향 도시를 향해 달립니다

경춘복선전철 개통

평일 운행 시간표

급행은 적색표기

상행 (춘천~상봉) /분	시간	하행 (상봉~춘천) /분
10 33	5시	10 18 31 51
00 12 26 42 47	6	06 28 38
01 15 33 48	7	01 11 25 50 58
04 25 38 51	8	21 30 52
12 25 40	9	00 30 40
05 20 40	10	04 20 36
02 20 40	11	01 20 40
05 20 40	12	02 20 40
05 20 40	13	02 20 40
05 20 40	14	03 20 40
05 20 40	15	02 20 40
05 20 40	16	02 20 40
00 25 40 55	17	02 15 32 50
10 35 45	18	10 35 46
00 18 40 50	19	00 20 30 50
14 26 47	20	00 14 40 53
00 20 45	21	11 35 55
00 20 45	22	20 40
00(상봉까지) 20(평내호평까지)	23	00(춘천까지) 14 30 50 (평내호평까지)

주말·휴일 운행 시간표

급행은 적색표기

상행 (춘천~상봉) /분	시간	하행 (상봉~춘천) /분
40	5시	40
00 20 40	6~22	00 20 40
00(상봉까지) 20(평내호평까지)	23	00(춘천까지) 15 30 50 (평내호평까지)